

지금 서점가엔 유희책 '열풍'

전생과 유희·환생을 소재로 한 문화 상품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서점가는 물론 TV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가요, 광고에까지 '환생 신드롬'이 불고 있다. 소설 <천년의 사랑>을 비롯, 같은 주제의 영화 '은행나무 침대(감독 강재규)', 댄스그룹 플라미의 대가요 '천상유애', SBS TV 드라마 '8월의 신부'와 KBS 2TV '전설의 고향' 등 유희와 환생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독자와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같은 환생 신드롬의 시작

'천년의 사랑' '...전생여행' 등 베스트셀러 진입
'유희의 진실' '...라마승이었다' 번역서도 인기
드라마·가요·광고 환생주제 줄이어

은 지난해 8월 출간된 양귀자씨의 장편소설 <천년의 사랑>(살림)을 비롯한 유희관련 서적에서 비롯했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초판을 인쇄한 지 6개월만에 110만부 이상 판매되

서 밀리언셀러 목록에 오른 이 책이 환생 신드롬의 진원지라는 것. '지고지순한 영혼의 사랑'을 주제로 한 <천년의 사랑>은 고아 출신의 젊은 여성이 믿었던 사랑과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 뒤 전생의 연인이었던 한 수도자를 만나 천년만에 사랑을 완성한다는 통속적인 줄거리를 편안한 문장으로 속도감있게 구성한 소설이다.

정신세계사의 전생·유희 시리즈 이 신드롬 조성에 한 몫을 했다. (김영우와 함께 하는 전생여행)(티벳 사자의 서)를 비롯, 번역서인 <유희의 진실>(나는 티벳의 라마승이었다)(전생요법)(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죽음 저편에서 나는 보았다) 등이 그것이다. 이중 세간에 화제가 된 책은 <...전생여행>과 <티벳 사자의 서>다.

<...전생여행>은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김영우씨가 환자 치료를 위해 최면요법을 사용하다가 '전생 기억 유도'에 성공한 사례를 담은 책으로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의 주목을 받았다. 죽음을 통해 삶을 배우게 한다는 <티벳 사자의 서>(파라마삼바 지)는 죽음과 환생 사이의 중간 상태 기간인 49일만에 해탈의 길로 이끄는 방법을 기록한 것이다. 심리학자 칼 융의 해석을 비롯한 상세한 해설과 주해를 더해 원전의 진의가 드러나게 했다. 이밖에 장경각과 시공사도 유희관련 서적을 많이 펴냈다. 장경각은 일반인을 위한 문서 포교의 일환으로 <유희의 비밀>(전생의 나를 찾아서)(누구도

운회를 부질할 수 없다)(환생) 필리 경전이 들려주는 업과 유희) 등을 펴냈다. 시공사는 전생과 유희를 주제로 한 Q북스 시리즈로 <삶 이후의 삶>(영혼의 탐구)을 출간하고 <삶 이전의 삶>을 출간 준비중에 있다. 이같은 책들이 대부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흥미위주의 읽을 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과응보와 유희설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건전한 윤리관을 선양하고 삶과 죽음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과 시각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크다는 것이 교계의 시각이다.

김재경 기자

출판소식

'출판정보통신' 창립

출판유통의 정보화 사업을 집담하게 될 컨소시엄 사업체 (주)한국출판정보통신이 지난 20일 정식발족했다. 출판정보통신은 출판유통 현대화의 토대인 출판정보데이터베이스화를 비롯, 출판사도매업체-서점을 하나로 연결하는 광역정보통신망(VAN)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한국문학번역 지원

(재)한국문학번역공고는 한국문학작품 번역및 출판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는다. 한국문학을 영·불·독·스페인어 등 4개 언어로 번역 출판하는 사업으로 번역의 경우 1천5백만원, 출판보조비는 5백만원내에서 지원, 10월15일까지. (02)720-3820

법화경 요품강의

현해 지음

실상요법 현대적의미 체계적 기술

<법화경 요품(要品)강의>는 현해지(일명 사 주지)의 30여년 <법화경> 연구의 결실이다. <법화경>의 사상과 성립, 구성과 주요 참고 문헌, 여러 현역 본에 대한 소개와 아울러 <법화경> 28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여덟 품(방편품 비유품 신해품 여래수랑품 상불경품 살품 약왕보살본품 묘음보살품 관세음보살본품)을 밝히며 강·주석한 책이다. 또 강의는 원문을 하나하나



풀이해 상세히 설명하고 각 단락에서 말하고 자 하는 뜻과 그 현대적 의미를 명쾌하고 체계적으로 설하고 있다.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화엄경>과 <아함·방등·반야경> 등 3승법을 설하신 뒤, 마지막 왕사성 영축산에서 회상귀일(會三歸一)의 최상승인 실상요법을 일러주신 가장 심오하고 공명미 많은 경으로 알려져 있다. (민족사 1만5천원)

화제의 책

종교에 나타난 성

J·파린더 지음

종교간 성의식 의학·심리학적 분석

남이 갈수록 성(性)문화가 일회용 상품으로 전락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세계 종교의 성에 대한 관심과 고찰한 책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국의 심리학자 조프리 파린더가 쓴 <종교에 나타난 성>(김동규 역)은 각 종교의 성에 관한 부분을 추려내어 상호 비교·검토하고 현대의학과 심리학으로 재조명함으로써 미래 인류를 위한 새로운 성운



리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불교에서는 성적 황홀감이 그들이 추구하는 열반과 경장관계에 있다고 간주한다. 부처님께서 "우리는 여인들에 대해 어떻게 처신해야 하겠습니까"라는 제자의 질문에 "절대 그녀들을 쳐다보지 말라"고 답했다는 것. 그래서 스님들의 출가 생활은 '모든 성관계를 포기한다'는 뜻을 지닌 '브라미차리아'라고 불린다. (동심원 8천원)

수필집 '저거는...' 시리즈 퍼낸 우학스님

"생활속 단상 진솔하게 표현"

우학스님(관음사 주지·영남 불교대학장)이 쓴 수필집 <저거는 맨날 고기 볶고> 시리즈가 서점가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며 지난달부터 '책방 여시'를 비롯해 베스트북서의 수위를 달리고 있다. "현실속에 살아있는 언어와 내용으로 불교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추상적 관념으로 흐르기 쉬운 불교사상을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글을 썼다는 스님은 일단 독자들의 관심유발을 위해 "튀는 제목"을 선정했다. 탈고정관념을 지향하는 선적 취향은 '이시발' '동성연애' '어묵' 등 튀는(?) 내용에도 그 맥이 닿아 있다. '스님이 지

나치다'에서부터 '술직담백하다' '출가기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등 독자들의 반응은 다양한 편. <저거는...> 2권과 3권에는 신심명과 중도가의 원문 및 해설이 곁들여져 불교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오는 9월 중순 4번째 작품 곧 출간 불교교육복지관 개관 경 출간될 <저거는...> 시리즈의 마지막 권4권은 회경스님의 구도행각과 보덕각사의 보살행을 소설형식을 빌어 다룬 예정이다. 사찰 주지, 불교대학장, 출판사 사장 등 1인 다역을 맡고



있는 우학스님은 오는 9월3일 대지 270평 지하 1층 자상3층 규모의 불교교육복지관 개관도 앞두고 있다. 이 복지관에는 불교간병인회, 장애인법당, 문화교양교실 등이 들어선다. 스님은 '책이 많이 판매되어 복지관 불사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고 말을 맺는다. (대구=이윤호 기자)

◇금주의 베스트북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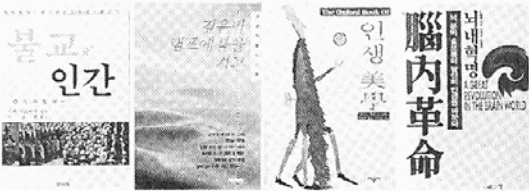
책방 여시이론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립
2	저거는 맨날 고기볶고	우 학	풍은인연
3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법 정	생 터
4	기도	일 타	효 립
5	무소유	법 정	범 우 사
6	마음을 속이면 인생이 즐겁다	권 집 부	정 토
7	그 마음을 바쳐라	김 재 용	용 화
8	한국사찰의 주연	권 영 한	전원문화사
9	참선교육	현 답	수 선
10	전생여행	김 영 우	정신세계사

구입문의:(02)737-0695

순 편자)= "스무살엔 의지가, 서른살엔 지혜가, 마흔살엔 판단력이 지배한다." (벤저민 프랭클린) 철학자 시인 소설가 음악가 미술가 정치가 등 한 시대를 풍미한 세계 저명인사들이 0세부터 100세까지 느꼈던 각 나이에 대한 단상을 모아 엮었다. 나이를 먹는 것과 생존에 대한 자세가 지난 몇세기에 걸쳐 근본적

으로 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시공사 6천5백원) ▲대뇌혁명(하루아마 시계오저)=정신과 의사인 저자가 인간두뇌의 생리와 심리현상의 인과관계를 설명한 과학서. 긍정적 사고가 몸과 마음에 최고의 약이 된다는 사실을 의학적 과학적으로 밝혔다. (사림과적 6천8백원)



새로 나온 책...

▲불교와 인간(나라 야사키 지·오진스님 역)=부처님을 향한 깊은 신앙심, 자신에 대한 철두철미한 문제의식 등 재가신도들의 현실생활을 중심으로 불교의 현대화·생활화를 모색했다. 일본 고마자와대학 나라 야사키 총장이 짓고 오진스님(동경대 동양문화연구소 협력연구원)이 번역했다. (경서원 7천5백원) ▲깊은 밤 랩프에 불을 켜고

(순준이 지)=박목림 김동리 등 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문인들의 숨겨진 일화과 문학세계, 실크로드를 따라 티벳고원을 넘어 카트만두에 이르는 대장정에서 체험한 이국의 풍물과 문화·문학 등을 담은 작가 손준익의 문학기행문. 티벳의 부처, 혜초의 신비, 막고굴의 불심 그 신기루, 티벳민족과 포탈리공의 신비 등 불교적인 단상이 돋보인다. (책만드는집 6천5백원) ▲인생미학(앤소니, 샬리 심

7월의 문화인물 도선국사

도선국사 위상 바로잡기

천년의 법력을 지닌 도선국사는 누구인가?



베스트셀러 불수의 작가 김종욱이 3년만의 심박 본에 내놓는 길 지도자의 비전 제왕의 길 을 만나십시오

신성적인 위대한 인물 도선국사. 그것은 고리를 개국한 왕권의 스승이었다. 도선국사의 큰 삶을 추적하여 이 만큼 부인해낸 작가정신이 놀랍다. 진정한 지도자가 없! 시대에 삶의 정도를 예시해준 <제왕의 길!> 읽도록 권한다. -김원일(소설가)

추천의 글

평소 아끼던 청년작가가 우리 시대의 묵시록 같은 소설을 써냈다. 운마를 길모는 잔재주가 판치는 시절에 정치한다는 일이 한없이 무모할기만 하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부거운 짐 하나를 지운다. 그것은 남부끄럽지 않은 지도자를 우리 스스로 길러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이다. -제정규(국회위원)

대한출판문화협회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4가 36 전화 927-2831 팩스 924-3236

THE LAST WORD

부처님의 유언

공파 스님 역해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다. 이제 세상은 모두 다 도(道)를 놓아 버렸다!

부처님 자비의 극치!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남기신 금쪽 같은 최후의 유언!

이! 이!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끝까지 간곡하게 당부하신 이 유언은 부처님 자비의 극치를 나타낸 것이로다.

그러므로 제자가 된 사람들은 아니 두 발로 땅을 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 최후의 말씀을 뼈에 새겨두고 간에 기록해야 할 것이다.

신국련 400면 7,000원

진도 유명서점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4가 36 전화 927-2831 팩스 924-3236